



광동고에서 열린 삼일절 기념법회에 참석한 불교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삼일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스님들의 나라사랑 배우드립니다

의정부 광동고 용성·만해·윤허·태허 스님 추모법회

“타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의요, 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은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93주년 3·1절을 맞은 3월 1일 의정부 광동고 5층 범당 자비원에서는 삼일절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의정부광동고등학교(학교장 박병선)와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홍)가 3·1절 기념법회를 봉행한 것이다. 법당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과 다짐이 묻어 나왔다.

바친 순국선열과 선사들의 뜻을 조용히 기렸다.

박병선 광동고 교장은 이날 발원문 낭독을 통해 “호국불교정신으로 일제 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나서는 한편 한문불경의 한글화, 사학 설립 등 민족의 발전 초석을 다진 선사들의 뜻을 이어받고자 한다”며 “3·1 정신을 발현해 남과 북이 동질성 회복과 자주 독립에 나서자”고 말했다. 이어 신용철 운허사상연구소장(경희대 명예교수)의 용성 만해 태허 윤허 스님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광동고 불교회 이준혁 학생은 “3·1 운동을 비롯해 수많은 스님들이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고 광동학원 설립 등으로 이어져 광동고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은철 학생도 “실명 중 윤허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민족 독립과 더불어 민족정신 배양을 위해 교육에 힘썼다는 사실에서 학생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광동학원이사장 화범 스님은 “3·1절 행사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이 보편화

되지 못하다보니 중요성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다”며 “광동학원은 67년 민족사학으로 종립정신을 기리고자 지역사회와 행사를 해오고 있지만 광동학원 설립자인 윤허 스님과 태허 스님이 빠져 있어 확대 개최하게 됐다”며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내년부터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분들 외에도 윤경 스님을 비롯해 독립운동을 돕다 옥고를 치른 스님들을 계속 발굴해 기리는 법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불청은 3·1절을 맞아 만해 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날 서강고 선민혁 군이 만해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3·1절 맞아 불교계 행사 다채

93주년 3·1절을 맞아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불교계 기념행사가 잇따랐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3월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33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백일장에는 만해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돼 전년에 비해 400여명 늘어난 2200여 명의 학생·일반인들이 참가했다.

이번 만해백일장 대통령상은 광주 서강고 선민혁(19) 군이 수필 ‘씨앗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선민혁 군은 “어린 시절 가게를 운영하던 어머니가 씨앗을 팔던 모습을 떠올려 글을 썼다”며 “글을 쓰는 세계 항상 용기를 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만해백일장은 단순히 금제주를 뽑내는 자리가 아닌 대아(大我)를 추구했던 만해 선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자리다”며 “만해 스님이 치열하게 추구했던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8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원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행)’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술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자승 스님은 추모비에 헌화한 뒤 법당 등을 참배했다. **관련기사 6면**

또 3·1절 기념 민족공동행사위원회는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3·1절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열고 독립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진혼제를 봉행했다. 한국대승불교중앙회를 비롯해 문화예술, 민족운동단체 등 37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행사는 한국대승불교중앙회 종정 범진 스님과 총무원장 탄열 스님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밖에 불교계가 수탁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3월 1일 200여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통일합창단의 3·1절 노래제창,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등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ICA) 자원봉사단과 함께 탑골공원까지 종로 일대를 만세행진을 재현했다.

용성 스님 법을 이은 도문 스님 주석처인 장수 죽림정사에서는 ‘3·1절 기념법회’가 개최됐다. 법회에는 정도희 법륜 스님이 은사인 도문 스님을 모시고 참석해 ‘3·1 독립정신과 민족통일’을 주제로 기념강연을 열었으며 방승인 김병조 씨의 사회 하에 민족대표 33인을 기리는 헌화,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만해백일장 2200여 명 참가 진관사 등 관련사찰 기념법회 독립열사 조명 서적도 나와

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태극기가 발견된 진관사(주지 계호)도 2월 28일 진관동사무소 앞에서 태극기나무 식수식을 갖고 태극기 장식, 만세삼창 등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3·1정신을 기리는 불교계 서적 발간도 줄이었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3월 1일 운암 스님이 1964년 쓴 진필 일기를 편역한 <혁명일기>를 발간했다. 이 일기는 중국에 있는 운암 스님의 세 아들이 보관하던 것으로, 친손자 김덕천 씨가 2008년 여러 문건과 함께 국내로 가져온 것이다.

또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최근 <대각사상 제16집>을 펴내고 ‘백용성의 민족운동과 연변불교문화’ 특집논문에서 허명철 김광식 김석주 이관복 박사 등의 용성 스님 독립운동 연구 및 연변지역 불교계의 독립운동 조사 결과를 담았다.

노덕현·이은정 기자

광동고 추모법회 4인 선사는?

용성 스님(1864~1940)은 16세 때인 1879년 해인사로 출가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로 참여하고 1920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만해 스님(1879~1944)은 1905년 백담사로 출가, 1910년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했다. 불교대전을 간행하고 불교잡지 <유신>을 발간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1919년 3·1운동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2년 뒤 석방돼 민족의식 고취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용성 스님



만해 스님



윤허 스님



태허 스님

윤허 스님(1892~1980)은 1912년 배일단체인 대중청년단에 가입했고, 5년 뒤 배달학교를 설립, 교포 아동교육에 매진했다. 1919년 봉천에서 독립군정기관지 <한족신보> 사장에 취임하고 다음해 광안단을 조직했다. 이후 봉천사 강원과 광동중학교를 설립하고 봉천사 주지를 거쳐 동국여경원을 설립한다.

태허 스님(1898~1969)은 1916년 용문사에서 출가, 독립군에 가담하기 위해 만주로 떠났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 서대문감옥에서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조선의열단 등에 가담하고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조직한다. 1942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도 취임했다.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모르게 남을 도읍시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우리에게 청빈한 삶과 서릿발같은 수행으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주신 우리 시대의 부처 퇴옹당 성철스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신 지 100주년을 맞습니다.

퇴옹당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다례

퇴옹당 성철 큰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큰스님 탄신일에 맞추어 다례를 봉행합니다.

- 일시 | 불기 2556(2012)년 3월 11일(음 2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 주최 | 성철스님문도회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다례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오후 1시부터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관람 안내를 합니다.)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자기를 바로 봅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출범 50주년과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개최합니다.

- 전시일정 | 2012년 3월 9일(금) ~ 2012년 6월 3일(일) 매주 월요일 휴관
- 개막행사 | 2012년 3월 8일(목) 오후 3시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재)백련불교문화재단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불교신문, 현대불교, 법보신문, 불교텔레비전(BTN), 불교방송(BBS) (회원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